

# 곽복산의 신문학 이론

## 곽복산의 언론학 이론

이상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명예교수

### I. 연구목적

곽복산 교수의 언론학 교육과 언론학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가 학문적 활동을 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란 위대한 사람의 전기라고 한 칼라일 (Thomas Carlyle, 1795-1881)의 말과 같이 史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란 구체적으로 한국의 언론학 역사에 남을 만한 기여를 한 인물을 말한다. 곽복산은 한국 언론학의 비조임에 틀림없다.

곽복산은 최초로 언론인 양성을 위한 신문학원을 설립했고, 최초로 대학에서 언론학 강좌를 강의했고, 최초로 대학에 언론학 관련 학과를 설립해 최초의 신문학 교수가 되었고, 최초로 언론학 관련 학회 (현 한국언론학회)를 설립했고, 최초로 언론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최초로 언론학개론이란 책을 발간했다.

### II. 시대적 상황과 사건중심의 언론학

본 연구는 사건과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서 단순한 나열이 아닌 시대적 상황

에 근거해서 사건과 인물을 다루고자 했다. 언론학이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쳤다. 첫째는 정규학교가 아닌 개인학원에서 기자양성과 훈련을 목적으로 언론학을 가르치던 학원시대, 둘째는 일부대학에서 언론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의 신문학 강좌 개설시대, 셋째는 대학에서 언론학 관련학과를 정식으로 개설한 대학의 언론학 관련 학과 개설 시대였다.

## 1. 언론학 관련 학원시대

언론학 관련 학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국지배 (1910-45)는 언론통제와 문화말살 정책으로 일관했다. 3.1 운동 후로 일제는 민족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920-40)를 허용했으나 1940년에는 이 두 신문마저 강제폐간 되었다. 따라서 1940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한국에는 일제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일어), 매일신보 (한글), 서울프레스 (영문)밖에 없었다.

일본의 2차 대전 패배와 미군정 (1945-48)이 신문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꿈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신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문의 홍수현상을 가져왔으며 하루 밤 사이에 24개의 일간지가 나오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Rowland. 1958, 450). 1947년 미군정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에만 85개의 일간지 (주간지 68개, 격주간지 12개, 월간지 154개)가 발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개 일간지가 서울에서 발행되었다.

신문의 이 같은 홍수현상은 그 만큼 많은 기자의 양성이 절실했음을 의미했다. 기자의 양성과 훈련은 단순한 등록에 의한 신문의 양적 증가와 달리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문의 양적증가에 비해 신문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자는 거의 전무했다. 기자의 양성과 훈련은 절실했지만 기자를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기관은 전무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자양성을 목적으로 한 조선신문학원이 설립됐다. 이 신문학원은 1947년 3월초 처음으로 6개월 과정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입학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규정한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학원의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기 6개월 과정은 30명 모집에 170명이 응시 (6대1)한 것을 보면 당시 신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시자가 많아 40명을 합격시켰으나 엄격한 수업과 시험을 거쳐 27명만이 졸업을 할 수 있었다. 1기 신문학원 입학식은 1947년 4월5일, 종로 YMCA 강당에서 거행 되었다. 강의 과목은 이론과 실체가 30%,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 기초 사회과학이 50%, 시사영어, 특강 등이 20%였다.

신문학 교수가 없는 당시라, 신문학 교육은 주로 신문연구에 관심이 있는 언론계 중진들이 담당했다. 사회과학은 각 대학의 저명 교수들이 가르쳤다. 강의는

야간으로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개월 진행되었다. 6개월 중 2개월은 신문사와 통신사에 배치하여 실습훈련을 받았는데 실습에 나갔던 학생들은 대다수가 그 언론사에 그대로 머물러 기자로 채용되었다.

2기 부터는 수업시간을 1년으로 했고, 50명 정원에 300명이 지원했다. 1기는 중앙여중 (황신덕)에서 수업을 했고, 2기부터는 을지로 2가 산업경제신문사 2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1948년 가을학기 부터는 본과1년, 연구과 1년 (본과 수료자의 입학)으로 학제를 개편해 대학원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1950.6.25-1953.7.27)으로 교육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부산 피난지에서도 교육은 다시 계속되었다.

피난 지인 부산서 조선신문학원은 1952년 4월, 명칭을 서울신문학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신 문을 열어 5기부터 7기까지 학생을 배출했다. 1기부터 7기까지 전체 졸업생은 190명에 달했다. 1953년 8월 초순, 서울 복귀에 따라 서울신문학원은 을지로 6가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고, 신문학 교육을 더욱 확충했다. 서울에서 입학한 8기생은 신문 전수 과 22명, 신문영어과 33명으로 모두 55명에 달했다.

그러나 5.16 혁명 (1961)후인 1962년 교사건물의 관리권이 전 태양신문사 사장 (노태준)으로부터 교통부에 이관됨에 따라 서울신문학원을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 뒤 사단법인 서울신문학원 사무국이던 조그마한 간판은 청량리 홍능에 있는 이 학원의 창설자 (곽복산) 자택에 걸렸고, 때때로 신문사, 방송국 등의 요청에 의한 출장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1967년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주년 기념식은 4월3일 신문회관에서 열렸는데, 서울신문학원 기념식과 우리나라 언론 선구자 추모 강연회를 마지막으로 신문학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 2. 대학의 언론학 강좌시대

1949년 서울대 (문리대)는 대학 최초로 신문학 강좌 (곽복산)를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서울 수복 후 다시 계속되었다. 서울대에 이어 연희대학 (문과대)에서도 부산 피난 시절인 1953년 4월부터 신문학 강좌 (곽복산)를 개설했다. 서울 수복후로는 고려대학교 정경대 (오주환), 이화여자 대학교 문리대 (최완복), 중앙대학교 법정대 (곽복산) 등 여러 대학에 신문학 강좌가 개설 되었다.

## 3. 대학의 언론학과 시대

홍익대학은 1954년 3월9일 국내 최초로 신문학과를 설립 (곽복산)했다. 1958년에는 홍익대학 8회 졸업식에서 신문학과 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 1959년 신문학과 2회 졸업생은 4명, 1960년 3회는 10명, 1961년 4회는 10명, 1962년 5회는 7명을 배출해, 5회에 걸쳐 총 51명의 신문학과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신문학과는 5.16 혁명 이후 (1961), 문교부의 대학설치 기준령의 미달로 폐과되어 1957년 4월에 2번째로 설립된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곽복산)에 통합되었다.

1960년에는 이화대학에 3번째로 신문학과 (이해창)가 설립된데 이어, 1963년에는 4번째로 한양대학 (박유봉)에, 1965년에는 5번째로 고려대학 (오주환)에, 1966년에는 경희대학 (황기오, 한병구)에 6번째로, 1967년에는 7번째로 성균관대학 (장을병)에, 역시 1967년에는 8번째로 서강대학 (존 미첼)에, 1972년에는 9번째로 연세대학 (서정우)에 각각 신문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가 설립되었다. 1975년에는 서울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0번째로 신문학과를 설립 (김규환, 임근수, 박유봉), 1968년에 설립된 신문대학원(김규환)을 흡수 통합했다. 1964년에는 중앙대학과 이화대학이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대학에서 신문학과를 설립하고, 신문학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은 일본 상지대와 동경대에서 신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상지대학에서 1기로 신문학과를 졸업한 (1935) 곽복산은 한국대학 최초로 홍익대학에 신문학과를 설립 (1954)한데 이어 두 번째로 중앙대학에 신문학과 (1957)를 설립했고, 같은 상지대학 후배인 이해창은 이화대학에 3번째로 신문학과를 설립 (1960)했고, 역시 같은 상지대학 후배인 박유봉 (후에 독일서 박사학위 취득)은 한양대학에 4번째로 신문학과를 설립 (1963)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김규환은 서울대학에 한국최초로 신문연구소 (1963)를 설립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신문대학원을 설립(1968)했고, 뒤 이어 신문학과 (1975)를 설립했다.

### III. 곽복산의 언론학 이론

#### 1. 언론계 업적

곽복산은 15세 때 인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의 중고등 과정 통신교육을 마치고 2년 후인 1927년 4월에 귀국해 동아일보의 지방주재 기자로 일했다. 2년간 지방주재 기자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열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는 다시 도일하여 1931년 일본대학입학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1932년 와세다 대학의 정치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같은 해 상지대학 (소피아 대) 신문학과 (3년 과정)에 제1기로 입학하여 1935년 졸업을 했다.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이 1929년 문과대학에 최초로 신문연구실을 설립했고, 이어서 상지대학이 1932년 처음으로 정규의 신문학과를 설치했다.

곽복산은 상지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연구실에서 잠시 근무한 후 1935년 동아일보에 다시 입사했다. 그는 상지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34년 10월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신문의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

하기도 했다(정진석, 1995.9). 광복산에 이어 상지대학을 졸업하고 광복산과 같이 언론학 교육에 기여한 인사로는 이해창과 박유봉이 있다. 이해창은 이화대학에 신문학과를 설립했고, 박유봉은 한양대학에 신문학과를 설립했다. 광복산과 이해창은 상지대학 선후배 사이로 매일신보에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광복산의 본격적인 기자생활은 상지대학 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면서 부터였다. 그의 신문과 동아일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남달랐다. 그는 1936년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11개월 간 정간 되었을 때 평양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복간되기만을 고대했다. 그는 1937년 7월에 고대하던 동아일보가 복간되자 이 기쁨을 감출길이 없어 얼마 전 낳은 큰 아들을 東亞日報의 이름을 줄여 東日로 지었다 (차배근 외, 1977, 115). 그 후 1남 3녀를 더 두었는데 이들의 이름도 東亞日報의 東자를 돌림으로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동성, 동임, 동실, 동희). 그는 그만큼 신문을 소중히 여겼고, 신문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러나 그는 1940년 8월10일, 동아일보가 지령 6,819호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지령 6,923호) 총독부의 폐간 령에 의해 폐간되자 그해 9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주로 중국대륙의 각 전선을 순회하면서 중군기자로 일했다(차배근 외, 1977, 115).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광복산은 동아일보의 준비위원 (설의식, 고재욱, 광복산)으로 활약했다. 그 해 12월 1일 신문복간과 함께 사회부장 겸 논설위원으로 신문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그러나 신문학원의 창설로 일시 동아일보에서 손을 뗐으나 한국전쟁 (1950-53)으로 부산으로 피난 중, 제주일보 주필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겸 논설위원(1952.3-1953.4)을 역임하기도 했다.

## 2. 언론학 교육의 업적

광복산은 언론계에서도 의욕적인 활동과 많은 공적을 쌓았지만 그는 언론학계에서 보다 큰 공헌을 했다. 이에는 광복산 개인의 역량과 비전, 카리스마 그리고 리더십도 작용했지만 시대적 상황으로도 광복산은 김동성이나 김현준에 비해 유리했다. 1920년 미국에서 신문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김동성은 동아일보의 창간멤버였고, 그의 전성기는 일본 식민지 시대인 1920년대와 1930년대였기 때문에 해방 후에 태동되기 시작한 언론학계에는 그의 개인적인 역량에 관계없이 기여할 수 없었다.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신문학 박사를 받고 1928년 귀국한 김현준 역시 당시에는 신문학이란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역량과 관계없이 언론학계에 기여할 수 없었다.

광복산은 1935년 일본서 한국인 최초로 신문학과 (3년 과정)를 졸업하고 귀국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그의 신문학 연구와 발전에 유리했다. 광복산은 귀국 후 해방되기 전 까지 5년간 (1935-1940) 동아일보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자 생활을 했다. 김동성이 1920년 동아일보의 창간 멤버로 전성기를 누렸다면

곽복산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동아일보의 복간 멤버로 활약, 그의 전성기는 해방 후였다. 이런 근거로 그는 동아일보가 복간되자마자 사회부장 겸 논설위원(1945.12.1-1947.2)으로 활약했다.

곽복산의 심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가 동아일보가 일본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때부터 해방될 때 까지(1940-45) 5년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가 동아의 복간 후 신문에 오래 종사하지 않고 바로 바로 신문학 교육과 언론인 양성을 위한 신문과학연구소와 신문학원에 전념하게 된 것은 그가 당시에는 유일하게 외국에서 정규 신문학을 전공했다는 점도 있지만 언론계에서 계속활동하기에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기자 경력이 부담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곽복산이 언론인 양성과 언론학 교육에 미친 공헌은 지대하다. 당시 동료교수였던 임근수도 우리나라 신문학 연구와 저널리즘 교육에 있어서 곽복산의 공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근수, 1984, 526). 본고에서는 곽복산의 언론인 양성과 언론학 교육을 신문학원, 신문학 교육, 신문학회 활동, 언론학 이론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1) 신문학원과 신문연구소

곽복산은 1945년 해방이 되던 해부터 언론에 대한 학문적 구상을 했다. 그가 처음 구상한 것은 신문학원이 아니라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신문연구소(1910)나 일본 동경대학의 신문연구실(1929)과 같이 대학에 신문연구소를 설립해 대학원 수준의 (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 예정자) 연구소를 설치해 신문의 학문적 연구와 기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곽복산은 1946년 1월 조선신문연구소를 창립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거의 1년간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가 그해 12월 5일 신문과학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했다.

이 연구소의 본부는 서울 남대문로 2가 한남빌딩 (현 롯데백화점 자리)에 두었고, 연희대학 안에 신문연구실을 두어 주요 신문, 통신사의 간부를 중심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꾀하는 한편 신문을 비롯해 라디오, 영화, 보도 부문까지 조사연구를 병행하면서 신문기자 양성에 주력한다는 사업계획까지 세웠다.

임원진에는 소장에 백낙준 (연희대 총장), 이사에 장이욱 (서울대 총장), 현상윤 (고려대 총장), 이병기 (서울대 교수), 김동성 (합동통신 회장), 설의식 (동아일보 주간), 상무이사에 곽복산 (동아일보 사회부장), 총무국 간사에 이해창 (한성일보 체육부장) 등이 추대 되었다. 임원진에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 연희대 (연세대), 고려대 총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 언론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문과학연구소 역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곽복산은 1947년 2월18일자로 미 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조선신문학원으로 인가를 받아 비로써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언론학 교육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광복산이 실질적인 책임자였지만 운영과 강의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후원자는 백낙준이었다. 그는 1913년부터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서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출판물의 영향’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같이 백낙준은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인 양성기관의 모체였던 신문과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았고,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연희대학에 신문연구실을 설치했다.

광복산은 1947년부터 1962년 신문학원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15년간 15기에 걸쳐 많은 언론인과 언론 학자들을 배출했다. 신문학원 출신으로 언론학 교수로 종사한 인물로는 김동철 (3기, 이화대), 팽원순 (5기, 한양대), 최종수 (광주대)가 있다.

1기 입학식은 종로 YMCA 대 강당에서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백낙준 박사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신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조그만 학원은 지금 황야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훗날에 커다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광복산 편. 1971, 40). 광복산은 또한 창립 1주년 기념식(1948.4.5)에 서재필(신문의 선구자, 1896년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창간)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서재필은 당시 미 군정청의 최고 고문관으로 서울에 와 있었는데 그는 이 강연에서 ‘저널리즘이 민주국가에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독립신문을 발간했을 때는 종로 네거리에 나가 종을 울리며 나도 신문을 팔았다’고 역설했다 (광복산 편. 1971, 41).

신문학원이 1950년대 중반부터 쇠퇴해 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사가 기자 채용에 있어서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대학에 신문학과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학위도 없고, 언론사 취업에 별 혜택도 없는 학원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광복산은 1969년 중앙대학에 신문방송연구소를 설립해 1971년 타계할 때까지 초대 연구소장을 맡았다. 그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연구소의 창설과 중대신문 500호를 기념하는 자축 파티 (1969.12.5)에서 앞으로 서울신문학원의 졸업증서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소장 명의로 발급한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중앙대학교 동문의 일원으로 영구히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학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7. 21).

여기서 서울신문학원의 졸업증서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소장 명의로 발급된다는 것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역사도 1969년이 아니라 1947년으로 소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9년 현재 40년이 아니라 62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학원은 광복산이 1947년 설립해 1962년 까지 15년간 많은 언론인과 학자를 배출한 후, 실질적인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1967년 서울신문학원 20주년 기념식과 우리나라 언론 선구자 추모 강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신문

학원의 졸업증서를 앞으로는 중아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소장 명의로 발급한다는 광복산의 의도는 자신이 설립한 신문학원의 폐원으로 이 학원 출신들의 소속이 없어진 것을 속으로 안타깝게 여기다가 자신이 중앙대학교에 설립한 신문방송연구소에 이들의 소속을 심어줄 정도로 그의 신문학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지극했다.

## 2. 대학의 신문학 교육

광복산은 최초로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했을 뿐 아니라 해방 후부터 최초이자 단 하나밖에 없는 신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신문학 교육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대학에 신문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 했을때 이들 강좌를 주도적으로 가르쳤고, 또 그 후 대학에 신문학과가 설립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49년 4월 서울대학교가 최초로 신문학 강좌를 개설했을 때 이를 담당한 강사가 바로 광복산 이었다. 6.25동란(1950.6.25-1953.7.27)으로 강좌가 중단되었다가 서울이 수복되면서 다시 이 강좌가 시작되었을 때도 2년간은 광복산이 가르쳤다. 이후 이해창 (광복산의 상지대 후배), 천관우, 박권상, 김규환, 이상희 등이 이 강좌를 가르쳤다 (정진석. 1995, 58). 서울대학에 이어 연희 대 (현 연세대)가 부산 피난시절인 1953년 4월부터 신문학 강좌를 개설했을 때도 역시 광복산이 이 강좌를 담당했다. 서울 수복후로는 여러 대학에서 신문학 강좌를 개설했는데 고려대학의 신문학 강좌는 오주환, 이화대학의 신문학 강좌는 최완복, 중앙대학의 신문학 강좌는 광복산이 각각 담당했다.

광복산은 전술한 학원과 대학에서의 신문학 강의를 토대로 1954년 3월9일, 홍익대학에 한국 최초로 신문학과를 설립했다. 광복산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한국 최초의 신문학 교수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복산은 전임교수로 최준, 임근수, 김광섭, 박동운 등을 초빙했다. 김광섭과 박동운은 언론 현업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했다. 홍익대학 신문학과는 1958년부터 1960년까지 5회 졸업생, 총 52명 (1회 20명, 2회 4명, 3회 10명, 4회 10명, 5회 7명)을 배출한 후 문교부의 대학 설치 기준 령의 미달로 폐과되고 말았다(정진석. 1995, 59).

홍익대학에 신문학과를 창설할 무렵부터 이미 중앙대학에서 신문학 강좌를 맡아오던 광복산은 1957년 4월 중앙대학교 법정대학에 신문학과를 창설해 역시 초대 주임교수가 되었다. 그 뒤 임근수가 먼저 교수로 초빙되었고, 홍익대학의 신문학과가 폐과될 때에는 최준 (1962년 신학기부터 )도 교수로 초빙되었다. 광복산은 1962년 홍익대학의 신문학과가 폐과 될 때에는 그 학생을 모두 흡수하여 구제해 주기도 했다 (차배근 외. 1977, 16). 광복산은 이후 1971년 60세로 작고할 때 까지 중앙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대내외 적으로 언론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광복산은 1964년 중앙대학에 신문학 석사과정을 최초로 개설했다. 중앙대학 신문학과 최초의 석사는 최진우가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한석, 래대룡, 김종완, 그리고 본 연구자 (이상철) 등이 받았다. 본 연구자는 1966년 석사과정에 입학



해 1970년에야 석사를 받았는데 그 것도 광복산 교수가 끊임없이 논문을 쓰도록 독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당시 중앙대학의 영자신문인 중앙헤럴드 편집국장 겸 이 대학 설립자겸 총장인 임영신 박사의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논문을 쓸 엄두도 못 냈을 때였다. 그 후 최진우와 본 연구자는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교수가 되었고, 리대룡은 중앙대학에 광고학과를 창설,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 3. 한국신문학회 창설

광복산은 1959년 6월30일 현 한국언론학회 (1985.4.27)의 전신인 한국 신문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10년간 역임했다. 신문학회는 그해 6월15일 광복산 (중앙대), 임근수 (중앙대), 최준 (홍익대), 오주환 (고려대), 장용 (동국대) 등 5명이 (상록수 다방)모여 학회설립을 논의하여 발족했다. 후에 박권상 (동아일보)도 가세했다.

6월30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보면 회장에 광복산, 부회장에 임근수, 한경수, 간사에 장용, 박권상, 이사에 대학 측을 대표해 최준, 이해창, 오주환이 선출되었고, 언론계 측을 대표해 천관우, 김광섭이 선출 되었다. 부회장인 임근수는 학계를, 한경수는 언론계를 각각 대표했다. 이같이 학회 초기 임원은 학계와 언론계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진석, 1995, 16)

1960년에는 이 학회의 학회지인 신문학보 1호가 창간되었다. 1호의 학보는 장용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게재했다. 1호 발간 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69년 학보 2호가 발간되었다. 또한 1959년에는 미국서 신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저널리스트들 (박권상, 진철수)이 관훈클럽을 만들고 신문연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 4. 언론학이론의 효시

광복산은 신문학 교육과 이론의 서구자로서 이 분야에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55년 최초의 신문학 연구 입문서인 '신문학 개론'을 서울신문학원 명의로 출간했다. 이 저서는 그가 서울신문학원을 비롯해 서울대, 연희대, 홍익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차배근 외, 1977, 118). 이 저서의 내용은 신문기사 작성과 편집 등 주로 신문지학에 국한된 것이었다.

광복산은 그러나 1960년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매체가 본격화 되면서 신문지학에 관한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결과 그는 1970년 중앙대학교 정경논집에 게재한 '언론학의 구상'이란 논문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언론학의 학문적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의 대상 영역을 신문지에서 나아가 방송, 영상, 잡지 등의 매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광복산은 누구도 언론학이란 말을 쓰지 않던 때, 언론학개론

(일조각, 1971)이란 이름으로 편 저서를 출간했다. 그의 이 같은 학문적 상상력(imagination)은 언론학이 오늘날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언론학 개론이라는 저서에서 언론학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주로 신문, 잡지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던 근대 신문학(금세기 초엽)이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그 대상 영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현대 신문학은 이를 포괄하는 광의의 신문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곽복산 편저, 1971, 3).

곽복산의 이 저서에 대한 처음 계획안에는 책의 이름을 ‘현대 신문학-매스미디어에 대한 종합연구’라고 붙였었다. 그런데 편저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학 개론-매스미디어에 대한 종합연구’로 과감히 바꾸었다. 이는 오로지 편저자의 독자적인 의도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그는 언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나는 학계에서 전혀 생소한 언론학이란 이름으로 그 학문적인 형성을 위해 첫 출발을 하고자한다’고 했다(곽복산 편저, 1971, 7-10).

언론학이란 이름을 가진 이 최초의 개론서를 보면 20명의 저자가 22개의 장으로 나누어 집필했다. 곽복산이 구상한 언론학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의 집필자와 각장의 제목을 보기로 하겠다. 곽복산(서론과 1장 신문학의 발전과 과제), 박유봉(2장 푸블리씨스틱 과학의 연구동향; 7장 국제통신의 발전과 성격), 김규환(3장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연구동향), 김일철(4장 커뮤니케이션과 대인영향의 연구방법), 임근수(5장 신문방송의 생성과정; 9장 언론 산업의 본질적 검토), 김종완(6장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개념), 장을병(8장 여론의 형성과 기능), 오주환(10장 언론자유이론의 기초), 최준(11장 한국 신문의 생성과정), 이한석(12장 현대 신문의 구조와 기능), 박승훈(13장 신문보도론 및 실제), 최종수(14장 신문 편집론 및 실제), 이덕근(15장 방송의 구조와 기능), 한병구(16장 방송제도의 제 유형), 김규(17장 텔레비전의 측면적 특성), 리대룡(18장 방송의 편성 및 제작), 전영우(19장 방송화법의 기본요령), 김정옥(20장 영화의 표현전달의 특성), 이명동(21장 보도사진의 개념과 실제), 백순재(22장 한국잡지의 발전과정).

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구상한 언론학은 신문, 방송, 잡지, 텔레비전 뿐 아니라 대화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여론, 영화, 방송화법, 보도사진 등 인간의 모든 공적 표현(all public expressions)을 포함하고 있다. 곽복산은 새로운 언론학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대의 변천은 새로운 전달매체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언론기관의 유일한 존재였던 신문은 새로이 등장한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미디어의 등장으로 언론의 거대한 두 지주로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언론의 강력한 매체로 등장한 것은 1960년 대 중반 이후였기 때문에 신문만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곽복산은 신문학 연구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언론의 모든 매체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했다고 말한다. 실로 언론은 인간의 눈이요, 귀요, 입이요, 삶의 외침인 표현이며 또한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언론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는 언론의 본질을 간파하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는 또 대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서대화는 신문, 잡지로, 구두대화는 라디오로, 구두, 회화, 육체적인 대화는 텔레비전 및 영화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중적인 보도매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곽복산 편저. 1971, 2).

곽복산은 애석하게도 언론학개론이 나오기 하루 전 쓰러져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발간한 언론학 개론의 책을 보지 못한 채 타계했다. 그는 12월23일 중앙여고 이사장 황신덕 여사 자서전 기념 출판 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서명하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12월24일 타계했고, 언론학개론 책은 다음 날인 12월25일에 출간되었다 (차배근 외. 1977, 120).

## ■ 참고문헌 ■

- 곽복산 편 (1971). 언론학 개론. 일조각.  
이상철 (2009). 언론학 50년의 성찰. 동서언론. 12집. 1-35쪽.  
이상철 (2007). 역사와 언론. 일지사.  
이상철 (2005). 커뮤니케이션 발달사. 일지사.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정음사.  
정진석 (1995).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 연구. 서강대 언론문화 연구소  
차배근 외 (1977). 한국신문학사. 정음사.  
한국언론학회 (1997). 곽복산 교수와 서울신문학원 50주년. 중앙대학교 정경대.  
Carr, E.H. (1990). What Is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Rowland, D.W. (1958). "Present Day Newspaper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ism Quarterly." Journalism History. pp.450-454.  
Stevens, John & Garcia, Hazel (1980). Communication History. Beverly Hills:  
Sage.